

다시 '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서 해안지방부터 비가 오겠다.

7월 22일 (음 6월 27일) **날씨**

광주	20~28℃
목포	21~26℃
여수	20~25℃
해운대	19~29℃
진주	20~26℃
대구	19~26℃
부산	20~26℃
서울	19~28℃
대전	20~27℃
충주	21~28℃
청주	20~27℃
전주	21~28℃
제주	19~27℃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1.0~1.5m
서해남부 먼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먼바다 북동~남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11:47 썰물 05:37
여수 밀물 06:58 썰물 01:13

날짜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22/25	23/28	23/31	23/31	24/28	24/32

장마전선 발달 주말 최고 30mm 비

추축했던 장마전선이 다시 발달해, 주말과 휴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22일, 여수·목포 등 남해안 일부 지역부터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예상강수량은 5~30mm 정도이다.

남해안 일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흐리고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휴일인 23일에는 장마전선이 광주·전남 전역에 영향을 미쳐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약해졌던 장마전선이 해상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람은 강하게 불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기습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비는 24일까지 계속되다 25일쯤 끝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관계자는 그러나 "기상 상황이 불안정해 장마가 끝날지는 확실할 수 없다"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서남해 '통나무 주의보'

중부 집중호우로 떠 내려와
신안 섬지역 선박 향해 위험

전남 서남해에 '고목 주의보(?)'가 발령됐다. 목포해양경찰은 21일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장마로 서남해 주요 항로 등에 대형 통나무와 고목 등이 휩쓸려 내려와 떠다니면서 항해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경은 이에 앞서 20일 신안군 흑산도 남동쪽 14km 해상에서 떠다니는 길이 6m, 지름 1m 크기의 대형 고목을 수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떠다니는 고목은 해상 지뢰와 같이 항해하는 선박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선박의 추진기인 스크루에 부딪힐 경우 대형 해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불법 어업 단속과 함께 고목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특히 여름 피서철을 맞아 피서객을 싣고 서남해 관광지로 떠나는 여객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비정을 투입, 주요 항로 주변에 대한 고목과 쓰레기 수거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최근 목포 하당 평화광장 앞 해상 등지에서 태풍 등으로 밀려 온 각종 쓰레기 10t을 수거했다. /목포=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900여만원 행거

전남지방경찰청 영경기동수사대는 21일 미성년자를 고용,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박모(38)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5월께부터 광주시 서구 쌍촌동과 남구 월산동에 각각 다방을 차려놓고 김모(15)양 등 미성년자 3명을 고용해 인근 모텔 등에 차 배달을 시키고 8만~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해 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표문화전당 부지 전면발굴”

중앙문화재 위원회 “유적 조사위해 필요” 설계 변경 불가피...건립일정 차질 우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부지 내 광주읍성 유적에 대한 전면 발굴이 이뤄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일 광주읍성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보존가치가 큰 유물·유적이 발견될 경우 문화전당의 기본설계변경이 불가피해 향후 건립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전남문화재연구원은 21일 오전 심정보·박강철 중앙문화재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옛 전남도청 주차장 인근 광주읍성터(광주시 문화재자료)에서 시굴조사 지도위원회를 가졌다.

전남문화재 연구원은 이날 길이 68m, 높이 1m84cm~3m69cm, 폭 5m70cm 규모의 광주읍성을 공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광주읍성은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 해자(도랑)를 설치한 평지성으로 조사됐다.

현장을 둘러본 심정보 중앙문화재위원은 “출토 와편(瓦片)과 자기편 등으로 미뤄 광주읍성 축조시기가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시대와 달리 고려시대일 가능성도 있다”며 “성곽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전면발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철 위원도 “이 곳이 관아터임을 암시하는 와관(瓦官), 대헌(대관) 등 명



(재)전남문화재연구원 이범기 팀장(왼쪽)이 21일 오전 옛 전남도청 주차장 인근 광주읍성터에서 문화재위원 등에게 광주읍성 발굴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해 광주읍성 대부분 훼손돼 별다른 유물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획기적인 문화유적이 나올 경우 설계변경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광주 고대사의 '실체'인 광주읍성 성의 보존, 복원 방법에 대한 논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문화전당 부지에 포함된 광주읍성 성곽은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된 광주읍성 유적으로, 현장 보존, 이전 복원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지난 98년 광주민속박물관은 황금동 일대 광주읍성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 논란 끝에

니원침 (6886)



교육위원선거 개입 혐의 중학교 행정실장 징계

전남도교육청은 교육위원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강진 모 중학교 행정실장 K씨를 징계하기로 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위원 임후보예정자에게서 고급 양주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K씨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장환 도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교육공무원들이 교육위원선거에 개입하거나 개입 오해를 살만한 인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하고, 개입 사실이 밝혀지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내 초동 운영위원장 K씨는 지난 5~6월 교육위원 임후보예정자인 A씨에게서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3병을 받아 학교운영위원 3명에게 1병씩 전달한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교선 결렬될 내달 총파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천여명은 21일 서울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날 말 사측과 교섭이 결렬될 경우 8월 중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지부장회의와 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정의로운 노조를 결의한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6일 11차 본교섭 이후 3일간 집중 마라톤 교섭에서도 타결이 무산되면 8월 중순 산별 총파업에 돌입,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의료산업화정책 추진 중단, 노사 자율교섭 보장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중도공원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 /연합뉴스

일본은 온사마 팬들 극성에 조기귀국

○...20일 극비리에 일본을 찾은 배운준 이 팬들의 과열된 행동으로 조기 귀국을 고려하고 있다고 일본 닛칸스포츠가 21일 보도.

○신문은 “온사마 일본 방문, 과열 팬들에 의해 적으로 부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배운준이 이날 CF 촬영차 일본 도요를 방문했으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지만 나리타 공항에서부터 그를 기다리는 팬들이 있었다”면서 “팬들의 과열된 행동으로 배운준이 조기 귀국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도.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배운준의 일본 소속사 IMX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배운준과 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당초 예정을 급하게 변경, 귀국 등의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이례적으로 고지. /연합뉴스

182개 중 30개 전져내고...

여수 소리도 컨테이너 수색작업 마무리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AR)'의 영향으로 여수시 남면 소리도 인근 바다에 추락했던 컨테이너 수색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수해경은 21일 “더 이상 해상에 떠 있는 컨테이너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추락한 컨테이너 대부분이 침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따라서 그동안 진행해 오던 컨테이너 집중 수색작업을 마치고 일반 경비업무와 병행한 수색작업으로 축소



여수해경이 고무보트를 타고 물위에 떠있는 컨테이너에 접근, 부표를 연결하고 있다. <여수해경제공>

■ 컨테이너 152개 왜 안떠올랐나

파손 틈새로 물 들어가 가라앉은 듯

컨테이너는 철재로 만들어졌지만, 물에 뜨게 설계돼 있다. 그러나 여수 소리도 앞바다에 추락한 182개 컨테이너 중 물에 떠오른 것은 30개에 불과했다.

물에 뜨도록 설계된 컨테이너가 왜 물에 뜨지 않았을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컨테이너가 물에 뜨지 않은 이유에 대해 2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선, 컨테이너가 파도에 휩쓸리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일부에 틈이 생기면서 물이 새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컨테이너에 실어진 화물의 중량에 따라 물위에 뜨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컨테이너는 보통 20피트(ft), 40피트가 주로 쓰인다. 20피트짜리는 ▲길이 6m ▲폭 2.4m ▲높이 2.6m이고, 40피트는 20피트짜리보다 길이만 2배 길다. 이에 따라 이미 물에 떠올라 해경이 인양한 30개의 컨테이너는 손상

프로그램 따로 설치 않고 집이나 사무실서... 신종 인터넷 도박 기승

5천만원 채권 업주 검거

도박 PC방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인터넷 도박게임 제공업체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접속만 하면 게임이 가능한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등 ‘신종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은 21일 손님들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조아조아(www.joa3.net·사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고 도박자금인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광주시 동구 게임동 ‘조아조아’ PC방 업

교육위원 선거 경쟁률 광주 2.1대1 전남 2.7대1

오는 31일 실시되는 제5대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위원 선거의 경쟁률이 각각 2.1대 1과 2.7대 1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제4대 교육위원 선거 당시 광주와 전남이 각각 2.9대 1과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광주는 낮아졌고 전남은 높아졌다.

교육위원 선거 출마자 명단	
광주 1선거구 (동구·북구, 3명)	▲박순달(여·69) 전 화정남초 교장 ▲박기훈(64) 호남교육신문사 사장 ▲김명만(64) 전 광주중부교육장 ▲전원일(62) 광주교대 교수 ▲박태순(62) 광주공고 교장 ▲김영수(59) 대자초 교감 ▲장휘국(55) 현 광주시교육위원 ▲유영식(44) 연세직업전문학교 이사장 (8명, 2.67대1)
광주 2선거구 (서구·남구·광산구, 4명)	▲문동주(65) 전 광주시교육연수원장 ▲오은영(64) 현 광주시교육위원 ▲김희중(63) 현 광주시교육위원 ▲이승연(63) 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주영길(62) 금당중 교장 ▲서재의(54) 한국스카우트 광주연맹 연맹장 ▲윤봉근(48) 현 광주시교육위원 (7명, 1.75대1)
전남 1선거구 (나주·함평·무안·장성·담양·영광, 2명)	▲나승욱(64) 전 전남도교육청 교육국장 ▲유재원(61) 현 전남도교육위원 ▲김복(55) 전 전교조전남지부장 ▲한연석(64) 전 전남교육과학연구원장 ▲박복민(55) 전 교사 (5명, 2.5대1)
전남 2선거구 (여수·광양·구례·곡성, 2명)	▲김성(64) 현 전남도교육위원 ▲민병홍(46) 현 전남도교육위원 ▲박갑식(65) 전 광양교육장 ▲채귀성(64) 전남교육공동체 여수상임대표 구례·곡성, 2명
전남 3선거구 (순천·장흥·고흥·보성·화순, 2명)	▲김명환(61) 현 전남도교육위원 ▲조준기(67) 현 전남도교육위원 ▲한이준(61) 전 전남도교육위원 ▲정해원(64) 전 순천고 교장 ▲남성우(64) 전 순천교육장 ▲이관석(64) 다산미술관장 ▲정연국(52) 전 전교조지부장 (7명, 3.5대1)
전남 4선거구 (목포·해남·진도·원도·영암·강진·신안, 3명)	▲서경용(66) 현 전남도교육위원 ▲오병민(62) 목포교육장 ▲박병하(70) 전 전남도교육위원 ▲서기남(63) 전 여수교육장 ▲유일웅(63) 전 목포교육청 교육과장 ▲박영승(50) 현 전남과학고 운영위원장 (6명 2대1)